

黎明前後

— 初期電氣事業에 대한 再照明 —

崔 漢 燮

17. 韓美電氣會社の 賣渡 ②

(5) 株總의 決議와 買收趣旨書

韓美電氣의 買收契約이 조인됨에 따라서 韓日瓦斯는 1909년 7월 2일 東京 日本橋區坂本町에 있는 銀行俱樂部에서 3백株이상의 大株主懇談會를 개최 澁澤會長이 韓美電氣會社の 買收經過와 장래의 경영 방침을 보고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고 다시 같은해 7월 21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臨時株主總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澁澤會長은 ① 韓美電氣會社の 買收趣旨 ② 買收교섭의 경과 ③ 계약의 내용 ④ 자금 조달의 방법 ⑤ 배수에 관한 諸經費 ⑥ 전차사업에 대한 장래의 전망등 7개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은 다음 定款改正을 上程, 原案대로 가결했다.

日帝, 韓美電氣買收到 血眼 對韓政策上 支障 많다고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韓日瓦斯는 일반 株主에게 「韓美電氣會社買收趣意書」란 것을 발표하였는데이 취지서에 의하면 그들이 韓國을 경제적으로 침략하는데 있어서 韓美電氣의 존재가 얼마나 큰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韓美電氣를 手中에 넣기 위하여 어떻게 策動하였는지 그 동안의 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전후사정을 짐작할 때 韓美電氣의 賣買는 韓僑와 日本人 사이에 이루어진 野心의 野合이었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는데 그 취지서 전문을 다음에 소개 한다.

〈韓美電氣會社買收趣意書〉

日露戰役 이후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 官民의 經營은 日就月將하여 특히 京城 및 그 附近에서의 發展力의 著大함은 실로 놀라운 바 있다. 즉 教育, 警察, 衛生, 道路등의 설비는 점차 그 面目을 一新 하였으며 金融, 商業, 運輸등의 기관 또한 叢裡에 비하여 크게 개선 되었으니 이들 文明的施設은 그 모두가 우리 本國人的 拮据經營에 依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市內의 電車 및 電燈은 약 10년전 부터 美國人 韓僑의 創始한 바가 되어 京城에 있어서의 日本人 세력의 展開上 하나의 障礙가 되어온 感이 있다.

이때문에 數年前 부터 이를 우리 本國人的 掌中에 넣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 혹은 公衙 또는 官邊의 聲援을 얻어 이의 買收策을 강구함이 적어도 3·4회에 그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볼키켜 보전데 우리들이 누차 이처럼 實行을 企圖한 所以는 오직 政治的으로 얻힌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2·3 有志의 열성적인 알선과 또 한편으로는 統監府의 도움을 얻어 本會社의 重役 및 그밖에 2·3의 조직에 의한 신디케트에서 매수협정을 끝내고 同事業이 곧 本國人的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의 快舉라고 아니할 수 없다.

京城은 韓國의 首都로서 八部の 百官이 갖추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統監府와 日本 駐劄軍을 비롯하여 大小 官公署가 위치하고 있으며 韓國 上流의 豪族과 신사들 또한 많이 이땅에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物資의 소비와 文明의 中心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電氣 및 가스가 이땅의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 日韓瓦斯會社의 창설 또한 여기에 뜻이 있으며 오늘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本會社에서 신디케트의 買收協定을 승인하여 가스 및 電氣의 두 사업을 아울러 경영하게 된다면 韓國 首都의 住民 必須의 二大要素를 독점, 교통기관을 비롯하여 炊熱 및 動力의 공급을 兼營할 수 있게 되니 어찌 편리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에 이 電氣事業을 他人이 경영하게 되면 點火 및 動力供給에 있어서 영업상의 경쟁의 야기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 때문에 當社는 영업개시 때 부터 수용가 권유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가스요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다소의 불이익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電氣會社 설비의 現狀으로는 電流가 當社의 埋設鐵鋼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러 兩事業을 합병하면 이러한 결함을 조속히 절충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경영 또한 매우 경제적이어서 利潤의 증진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韓美電氣會社의 경영방법에 대하여는 자칫 世間의 비판을 받아 왔으니 혹은 그 主宰者가 美國人이기 때문에 또는 燈力의 불충분과 電車設備의 부실등의 요인으로 住民의 감정을 害하여 경영자와 수용가가 다 함께 便益을 얻지 못한 形跡이 있었다.

지금 이 사업을 日韓人의 손에 놓고, 즉시 시설개선과 확장을 실행한다면 이들 결함은 원만히 해결 될 것이며 더우기 韓美電氣會社는 지금까지 電氣特許權과 함께 그 사업경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각종 原料에 대하여 關稅免除의 特典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영만 잘 한다면 그 前途 실로 有望視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 日韓電氣株式會社가 韓美電氣會社를 매수하면 영업은 통일되고 경비는 절약되며 工事は 고장이 감소됨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 住民의 公益을 증진시켜 日本이 추진하고 있는 韓國經營策의 一端을 助成할 수 있다면 이는 곧 本會社 창설의 趣旨를 관철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6) 事業의 引繼

韓日瓦斯는 韓美電氣의 사업 및 전재산의 인수를 위하여 1909년 7월 28일 宇 務 長 官 久半良作, 변호사 岸精一, 공학박사 白石直治, 기사 廣澤範敏 등 4명을 인수위원으로 선정, 동 8월 9일 서울에서 쌍방 위원회의 입회하에 계약서에 의한 전재산의 인수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 인수 때 岡崎遠光전무가 人力車의 전복으로 중상을 입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皇城新聞은 당시의 인계인수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909. 8. 8 일 宇 務 長 官 久半良作 雜報〉

(發電所調査) 韓日瓦斯電氣株式會社 曩者에 買取한 電氣會社를 引繼하기 爲하여 兩昨日부터 岡田, 曾禰 兩重役을 東大門內 發電所에 遣하여 調査케 하난 中이라더라.

〈1909. 8. 10일字 皇城新聞·雜報〉

(車覆重傷) 韓日瓦斯會社 專務取締役岡崎氏 東大門外 發電工場을 引繼키 爲하여 人力車를 乘하고 昨日 同工場으로 向하다가 途中에서 所乘人力車가 顛覆하여 重傷을 負하였난되 此同 瓦斯會社의 事業이 敗亡될 徵兆라고 云云하난者 有하다더라.

이러한 전복사고를 市民들은 오히려 고소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당시 우리 國民들의 排日思想이 잘 나타나고 있다.

韓人 103명이 總罷業
退職手當要求·團體行動

한편 韓日瓦斯가 인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特許權: 電氣鐵道, 電燈, 電話, 松都 漢江間電鐵敷設權, 其他
2. 財 產: 콜브란, 보스트위크 兩人的 持株 5천株, 韓國皇帝의 持株, 土地建物 설비일체, 書類 28通 帳簿 11冊, 在庫品 및 石炭, 家具付器, 保險料, 電車 37台 貨物運搬車 13台
3. 社 員: 總人員 212名(韓國人 188名, 美人 3名, 日本人 21名) 俸給 月額 5천 6백 46圓 35錢 이들 韓國人 188명 가운데 車掌은 53명 運轉士는 49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賣票員과 그 밖의 직종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美國人 3명중 2명의 월급액은 각각 5백원, 1명은 2백70원이며 日人들도 이에 준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반하여 韓國人 車掌의 1개월 급여액은 1인 평균 12원 86전 1日 43전이었고 운전사는 1인 평균 16원 83전, 1日 56전의 低賃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韓國人 종업원은 인수인계과정에서 보증금과 월급 및 手當金등을 요구하여 同盟罷業등의 분규가 일어났는데 당시의 그 상황을 皇城新聞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9. 7. 18일字 皇城新聞·雜報〉

(掌車手宴會) 韓美電氣會社를 該社長 高佛安氏가 日本瓦斯會社로 賣渡한 門에 對하여 掌車手 一百三名이 同盟罷業하고 保證金及 月給과 手當等 五圓式을 推覓하여 日間 新車外(새절) 노 會同하여 盛大한 宴會를 開하고 同類間에 電車使用하기에 多年 勞苦하든 慰抱를 相叙한다더라.

여기의 掌車手 103명은 運轉士와 車掌을 말하는데 그들은 韓日瓦斯에 인계되기에 앞서 먼저 韓美電氣에 대하여 보증금과 월급 및 퇴직수당등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들이 요구한 보증금은 당시 韓美電氣가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身元保證金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 還給을 요구했던 것이다.

한편 韓日瓦斯는 이처럼 종업원사이에 분규가 일어나자 콜브란에게 종업원이 근무에 성실하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하고 종업원을 무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同日字 皇城新聞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掌車手仍舊) 韓日瓦斯會社社長이 日昨에 高佛安氏에게 公函하기를 各掌車手가 比前보담 勤勞하난 境遇이면 因舊 使備하겠스니 各掌車手에게 說明하라 하였다더라.

그러나 이 분규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韓美電氣의 콜브란은 보증금만 반환하고 위모금

(퇴직수당)은 한푼도 주지 않은채 전원 해고하고 前職중업원 몇사람을 채용 당시 보유하고 있던 電車 37대, 貨物運搬車 13대중 간신히 5 대만 운영했던 것인데 皇城新聞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9. 7. 24일字 皇城新聞·雜報〉

(掌車手와 電氣會社の 結末) 身分保證金還給 慰勞金請求等事로 인하여 韓美電氣會社 運轉手及 車掌等 一百三名이 同盟罷業함은 既報한바어니와 右會社更에서난 慰勞金請求난 拒絕하고 保證金은 還付하여 解雇함으로 去 二十一日부터 該罷業者等은 全部 極樂庵에 會合하여 善後方策을 會議한 結果로 代表者 四名을 韓日瓦斯會社에 派遣하여 鈴木主事를 訪問하고 貴會社가 彼電車を 引繼한 後에 余等を 雇傭 하겠느냐고 問한則 同氏난 此가 重要한 事件이니 會社 重役에게 得許한 後에 回答하겠다 함에 代表一同은 失望하여 極樂庵에 歸着하여 右訪問 顛末을 報告한즉 會集하였든 一同은 更히 如何한 方法이 無함으로 即時 解散하여 各自 求業하기로 決心하고 下午八時에 悉皆退去하였스며 會社에서난 前日에 雇傭하든者 十名을 傭入 하여 二十一日까지 五台의 電車を 運轉하더니 昨二十三日부터 十七台의 電車を 運轉하여 旧日狀態를 漸漸 回復한다더라.

〈1909. 8. 7 일字 皇城新聞·雜報〉

(採用與否質問) 運車掌手等 百餘名이 再昨日에 總代를 選定하여 韓日瓦斯株式會社에 派送하여 該百餘名等の 採用與否를 質問하였다더라

韓國人 중업원의 동맹과업과 분구는 韓日瓦斯가 사업을 인수한 뒤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결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韓日瓦斯의 사업인수 품목에 이들 중업원이 전원 포함되어 있고 또 그밖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이 韓日瓦斯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7) 韓美電氣의 殘務處理

韓美電氣會社の 實體는 이처럼 이미 賣渡되었으나 法律上의 해산수속을 완료할 때까지는 아직 그 本社は 美國의 세이부룩市에 존재하여 美國法人으로서 洲法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韓美電氣는 1909년 7월 12일 서울事務所에서 重役會議를 열고 다음과 같이 決議함으로써 要式행위를 갖추었다.

〈決議〉

「이 會議에서 日韓瓦斯株式會社에 매각 및 양도를 확인한 서류의 交付에 의하여 電氣會社の 재산이 右 會社에 移轉할 時에 取締役社長 H·콜브란, 取締役副社長 H·R·보스트워크, 取締役 R·L·셀렌의 3명은 辭任하라는 動議를 可決하였음.

上記 3重役의 辭任에 따른 後任者는 日韓瓦斯株式會社에서 指名되며 또한 其中 首席者가 新重役會議의 會長이 됨을 여기에 同意함」

위의 결의에 의거 同日 다시 重役會議를 열어 岡崎遠光, 山口太兵衛, 久米良作, H·E·콜브란, S·L·셀렌등 5명을 重役に 선임함과 동시에 H·E·콜브란의 總支配人書記 및 會計主任 사임원을 받아들여 후임으로 曾禰寬治를 書記 및 會計主任에 선임했다.

또한 韓日瓦斯의 요청에 따라 S·L·셀렌은 1909년 9월 15일 세이부룩市에서 개최된 株主總會에 출석 解散에 관한 모든 決議와 수속절차를 완료하여 韓美電氣會社를 완전히 해산했다.

한편 韓日瓦斯는 日本 第一銀行에서 1910년 7월 28일 50萬圓을 借入, 당일 橫濱에 있는 인더비서 銀行을 經由, 社債 25萬달러를 상환하였다.

그리고 1911년 3월 6일 韓美電氣會社의 重役 岡崎, 久米, 山口 등 3人是 美國法律에 따라 東京에 있는 駐日美國大使館에 出頭, 美大使의 面前에서 會社의 해산을 宣稱하고 서명 날인하여 查證을 받은 다음 이를 美國에 송부 1911년 5월 24일 코네티컷주 書記官이 이를 受理함으로써 韓美電氣會社는 法律上으로도 완전히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旧韓末의 어지러운 風俗과 함께 파란 많은 운명이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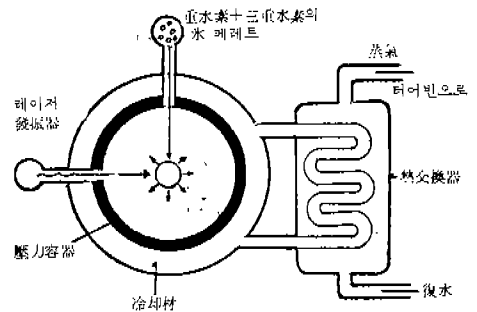
〈本編 끝〉

*

* 2分講座 *

〈原子核 融合의 수수께끼〉 ⑤

核融合爐 成立의 條件은 무엇인가 (3)



慣性밀폐型 核融合爐의 概念圖

重水素와 三重水素의 混合物로 이루어진 어름(氷)을 큰 펄스출력의 레이저光 혹은 高에너지의 電子빔등으로 照射하면 대단히 밀도가 높은 超高温플라스마가 순식간에 생긴다. 이 플라스마는 자기자신의 큰 內部壓力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주위에 확산하는 동시에 밀도는 저하한다. 高密度 때문에 극히 밀폐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核융합 반응은 달성된다. 밀폐시간은 플라스마의 자유팽창에 있어서의 慣性에만 의지하고 있으므로 慣性밀폐라고 한다.

D-T反應의 경우 플라스마溫度를 1億度라고 한다면 대체적인 계산으로 密度와 밀폐시간의 승은 $10^{14} \text{cm}^{-3} \cdot \text{sec}$ 로 臨界條件이 된다. 표와 같이 磁界에 의한 밀폐에서는 이온密度는 1立方cm당 10의 14곱하기에서 16곱하기 정도가 되므로 밀폐시간은 100분의 1초에서 1초정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固体의 이온密度는 10의 22곱하기의 자릿수가 기대되므로 밀폐시간은 불과 1억분의 1정도로서 좋은 것이다. 이 정도의 시간일 것 같으면 粒子에 慣習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 小爆發의 형태로 核融合이 일어난다.

예비 가열용의 레이저광이 순간적으로 어름의 표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중심으로 향하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과 중심으로 향하는 粒子의 운동량에 의해 어름의 중심은 압축되어 密度는 액체의 1천배에서 1만 배에 달한다.

이때에 巨大出力의 펄스레이저를 照射하게 됨으로써 연료를 한꺼번에 核융합 溫度까지 올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팽창의 시간은 밀도에 따라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音速에 逆比例하므로 慣性밀폐方式으로서 높은 壓縮比를 얻는다는 것이 연구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

巨大出力 펄스레이저裝置의 기술적 개발도 이러한 방식에 따른 核융합 실험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大出力의 레이저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니움갈라스 레이저라고 할 수 있으나 炭酸가스 레이저는 효율이 높으며 플라스마의 흡수가 좋으므로 가까운 장래 실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극히 개념적이나 慣性밀폐方式에 의한 核융합로를 그림으로 표시한다.

*